

금요 양성 2025년 8월 22일

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

참되고 완전한 기쁨: 프란치스코와 고통

고통중에 있을때도 프란시스는 다음의 사항들로부터 자신감과 기쁨을 체험하였다.

- + 하느님의 부성 체험;
 - + 예수님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불굴의 믿음;
 - + 모든 피조물과의 우주적 형제안에서 창조주를 만나고 찬미할 수있는 체험
- (FUN 메뉴얼 “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칙”에서 - 데레사 베이커, OFS)

참되고 완전한 기쁨

<https://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rue-and-perfect-joy/182-fa-ed-1-page-166>

(번역출처: 프란치스코 원전 01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301쪽)

¹ 어느날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에 머물고 있을 때 레오 형제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같은 형제(레오나르도 형제)가 전하였다. “레오 형제 기록하십시오”. ² 레오 형제가 대답하였다. “예, 준비되었습니다”. ³ 프란치스코가 말했다. “어떤 것이 참된 기쁨인지 기록하십시오”.

⁴ 어느 소식 전달자가 와서 파리의 모든 교수들이 우리 수도회에 들어왔다고 전한다고 합시다.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으십시오. ⁵ 마찬가지로 알프스 산 너머 모든 고위 성직자들, 대주교들과 주교들이 우리 수도회에 들어오고, 또 프랑스의 왕과 영국의 왕이 우리 수도회에 들어왔다고 전한다 해도, 그런 것들이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으십시오. ⁶ 마찬가지로 나의 형제들이 비신자들에게 가서 그들 모두가 신앙을 갖게 하였고, 또한 내가 병든 이들을 고쳐 주고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큰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한다 해도 나는 형제에게 말합니다.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”

⁷ “그러면 참된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?” ⁸ “내가 페루자에서 돌아오는데 이 곳에 밤이 깊어 도착합니다. 때는 겨울이고 진흙길이며 몹시 추워, 나의 수도복 자락에 적은 찬물이 얼어 고드름이 되고, 그 고드름이 자꾸 다리를 때려, 다리의 상처에서 피가 나옵니다. ⁹ 그리고 내가 추위에 떨면서 진흙과 얼음에 뒤범벅이 되어 문에 다가가서,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고 부르기를 수차례 한 다음에야, 형제 하나가 나와서 ‘당신은 누구요?’ 하고 묻습니다. 나는 ‘프란치스코 형제입니다’라고 대답합니다. ¹⁰ 그는 ‘썩 물러가라, 지금은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니, 들어 올 수 없다’라고 말합니다. ¹¹ 내가 다시 애걸하자, 그는 ‘썩 물러가라, 어리석고 무식한 것아,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오지 말아라. 우리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으니, 너는 필요 없어! 라고

대답합니다. ¹² 나는 또다시 문 앞에 서서 ‘하느님의 사랑으로 오늘 밤만이라도 저를 받아 주십시오! 하고 애걸합니다. ¹³ 그러나 그는 ‘그럴 수 없어!’ ¹⁴ 십자가의 수도회로 가서 부탁해 봐!’라고 대답합니다. ¹⁵ 이러한 경우 만약 내가 인내를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면, 바로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또한 참된 덕도 영혼의 구원도 있다고 나는 형제에게 말합니다’.

깊은 숙고 (토론)를 위한 질문

- + 성 프란시스가 일생동안 견뎌냈던 고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 그의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?
- + “완전한 기쁨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” (위에 나와 있는 글이나 잔꽃송이에 나와 있는 글을 다시 읽어 보시오)
- +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?
- +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?
- + 고통은 벌인가 기회인가?